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김 광 혁**

초 록

본 연구는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가족 결손, 그리고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 중2패널 3개년도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이다. 분석결과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그리고 이웃환경은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은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가족 및 환경의 영향은 사교육비, 부모자녀 애착, 자기통제력, 부모생활감독 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 아동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빈곤, 가족구조, 이웃환경, 학업성적

* 본 논문은 2006년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 자료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전주대학교 사회복지전공

I. 서 론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은 대학 진학 또는 미래의 직업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인정되고 있다(Haveman and Wolfe, 1994). 따라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나 친구 관계, 학교 수준이나 위치 등 전반적인 학교 관련 요인, 아동의 성별, 정서적 특성 및 신체적 건강 등 아동 요인, 부모의 학력이나 나이, 양육태도, 정서적 특성 등 부모요인, 가족요인, 아동과 부모의 관계적 요인 등을 지적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가족의 경제적 상태나 가족 형태 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Duncan and Brooks-Gunn, 1997; Haveman and Wolfe, 1994; McLoyd, 1998; Corcoran, 2000; Bradley and Corwyn, 2002).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가족의 경제적 결핍이나 한 부모 가족과 같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빈곤한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아동발달에 대한 지원의 절대적 결핍으로 인해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핍의 시기가 연속적이고, 장기화 될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인다(Duncan and Brooks-Gunn, 1997; McLoyd, 1998; Corcoran, 2000). 그리고 이 분야의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빈곤의 영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Brody, Stoneman, and Flor, 1995; Duncan and Brooks-Gunn, 1997; Guo and Harris, 2000; Jackson, Brooks-Gunn, Huang and Glassman, 2000; Linver, Brooks-Gunn and Kohen, 2002; Yeung, Linver and Brooks-Gunn, 2002).

대표적인 가족결손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한 부모가족 역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McLanahan, 1985; McLanahan and Sandefur, 1994; McLoyd, 1998). 선행연구들은 부 또는 모의 결손이 경제적 결핍을 가져오거나 부 또는 모의 양육 부담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양육을 유발시켜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역할 모델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기 아동의 학

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또한 최근에는 가족 내 환경의 영향을 넘어 이웃 및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웃의 경제적 수준이나 결속력, 비공식적 통제 등 이웃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Wilson, 1987; Sampson and Morenoff, 1997; Corcoran, 2000). 즉 이웃의 경제적 수준이나 통합정도 또는 친밀도 그리고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선행연구 축적과 연구 경향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서도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수 축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¹⁾. 특히, 빈곤이 아동기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손 가족의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다수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구의 연구결과와 같이, 아동기의 빈곤 또는 한 부모 가족구조가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인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학업성적에 대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과적 관계가 분명치 못한 경우가 많고, 몇몇 종단적인 자료에 기초한 연구 역시, 조사 시작 시점에서의 학업성적 수준을 통제하지 못하여 현재의 학업성적이 빈곤이나 가족구조의 영향인지 또는 그 이전의 다른 변수의 영향인지를 명확히 밝혀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학업성적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내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의 이 분야 선행연구들은 빈곤 또는 가족구조의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최근 학업성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청소년기 아동의 증거시적인 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는 이웃 환경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

1)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연구로는 김경근(2000), 김기현(2004), 김현주, 이병훈(2005), 구인회(2003), 구인회 외(2006), 김광혁(2006), 임세희(2007) 등이 있다.

밖에도 분석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주요 변수들을 모형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못했거나 통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며, 사례수의 제한으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 3개년도(03-05)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웃 환경의 영향 역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대표적인 가족의 경제적 결핍 현상을 대변하는 빈곤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 빈곤(1차년도)과 연속적인 빈곤(1-3차년도)이 학업성적(3차년도)에 미친 영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1차년도 학업성적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빈곤과 학업성적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대표적인 가족결손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한 부모 가족구조가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가족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가족 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을 동시에 발생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이상의 가족 빈곤이나 한 부모 가족구조의 영향 또는 이들의 상호작용의 영향이 어떠한 변수들을 통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해 사교육비, 부모-자녀 애착, 부모감독, 자기통제 등의 매개변수 모형을 분석한다. 다섯째,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이웃의 사회적 자본형태라 할 수 있는 이웃의 친밀감 또는 통합정도와 비공식적 사회통제 정도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학업성적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업성적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과 가족 결손의 영향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방향 및 역할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 부모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밝힘으로써 학업성적에 대한 한 부모가족구조의 부정적 영향이 경제적 결핍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가족의 경제적 결핍이나 구조적 결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힘과 동시에

이웃환경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이들 가족 청소년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개입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은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1-1. 과거 빈곤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가?
 - 1-2. 연속적인 빈곤 경험과 일시적 빈곤 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2. 빈곤은 (한 부모)가족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빈곤은 사교육 지원, 부모-자녀 애착, 부모감독, 자아통제력 등 매개변수를 통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4. 이웃 환경은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의 검토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결핍이나 구조적인 결손이 아동기의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이다(Hill and Sandfort, 1995; Brooks-Gun and Duncan, 1997; Bradley and Corwyn, 2002).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경제적 상실을 경험할 경우,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러한 경제적 결핍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진다고 보고한다(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 Korenman, Miller and Sjaastad, 1995). Duncan et al(1994)과 Korenman et al(1995)은 빈곤이 아동의 인지발달 또는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같은 빈곤 경험일지라도 일시적인 빈곤보다 장기적인 연속빈곤을 경험했을 경우, 인지발달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기의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점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들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은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결핍이 아동 발달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설명한다(Becker and Tomes, 1986). 즉 부모는 아동의 발달을 위해 시간과 재정적인 자원을 투자하며, 이러한 투자는 아동의

미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한 가정의 부모는 부유한 가정의 부모나 가족에 비해 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보유 자원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교육과 기술 등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적 금전적 자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히 재정적 자원이 건강, 인지적 자극을 위한 놀이나 관람 참여, 사교육 지원, 가정의 물리적 환경 등을 통해 아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영향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Duncan and Brooks-Gun, 1997; Guo and Harris, 2000; Yeung, Linver and Brooks-gun, 2002; Eamon, 2002). 실제로 아동의 학업성적과 관련된 교육적 지원이나 경험, 그리고 가정의 물리적 환경 등의 투자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교육적 지원이나 경험, 가정 내외의 환경 등은 아동의 학업성적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김광혁, 2006; Guo and Harris, 2000; Yeung, Linver and Brooks-gun, 2002).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결핍의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또 다른 과정은 가족과정모델(family process model)이다. 가족과정모델에서는 인적자본이론과 달리, 비금전적인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강조한다(Conger et al, 1992; Duncan, Brooks-Gun, 1997; Guo and Harris, 2000; Jackson, Brooks-Gunn, Huang and Glassman, 2000; Linver, Brooks-Gunn and Kohen, 2002; Yeung, Linver and Brooks-Gunn, 2002). 또한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 빈곤이나 가구주의 실업과 같은 경제적 박탈의 부정적인 영향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그 영향의 과정을 가족관계 및 양육행동의 변화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가족의 경제적 결핍은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가족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기 쉽고, 이로 인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관심이 감소되고,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을 유발시켜, 아동의 자존감이나 유능감, 자기통제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적과 같은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한다(McLoyd, 1990). 실제로, 가족의 경제적 결핍은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부부간 또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이나 표현을 감소시킨다. (McLoyd, 1990; Conger et al, 1992; McLeod and Shanahan, 1993). 이러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변질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Conger et al, 1990; 1993). 부모의 비지지적, 적대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학업에 대한 격려와 관여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격려와 관심의 감소가 아동의 자기신뢰감의 감소, 유능감의 저하, 자기 통제력의 저하 등을 통해 학업성적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된다(Steinberg, Lamborn, Dornbusch, and Darling, 1992).

아동의 학업성적과 관련된 또 다른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은 한 부모 가족 구조이다. 한 부모 가족구조가 아동의 학업 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가족구조가 가족소득이나 빈곤과 같은 경제적 결핍 상태 못지않게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이 큼을 지적하고 있다(McLanahan, 1985; McLanahan and Sandefur, 1994; McLoyd, 1998). 일반적으로 한 부모 가족의 아동은 양친부모 가족의 아동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Lanahan, 1985). 이러한 한 부모 가족구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과 같은 경제적 결핍 상태에 처하게 됨에 따라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한 부 또는 모의 양육 부담의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결핍 역시, 가족구조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McLanahan, 1997). 즉 아동의 양육을 담당한 부 또는 모의 경우, 아동에 대한 양육과 동시에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되어 긍정적인 아동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소 중 가족 빈곤이나 한 부모 가족구조 등 두 요소는 학업성적과 같은 아동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가족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가족 요소들 중 어떠한 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McLanahan, 1997).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빈곤과 한 부모가족구조는 독립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웃 또는 지역사회 환경 역시,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ilson, 1987; Sampson and Morenoff, 1997; Corcoran, 2000).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지역사회에 아동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웃 간의

통합성이 떨어지며, 아동양육에 대한 비공식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가 약할 경우,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또래 관계나 신체적인 활동이 왕성해지는 청소년기의 경우, 가정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임을 고려했을 때, 이웃 환경 역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밖에도 아동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부모의 학력과 아동 성별, 건강 등을 들 수 있으며, 청소년기 아동의 경우, 학교 계열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주요변수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조사된 한국청소년패널 중학교 2 패널 1-3차년도(중2-고1) 자료 3449사례이다. 본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해 청소년패널 조사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학업성취도, 가족빈곤, 가족구조, 이웃환경, 사교육지원, 부모자녀 간 애착, 부모감독, 자기통제력 등 주요변수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와 과정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는 3차 년도에 측정된 결과가 사용되며, 독립변수인 빈곤변수는 1차 년도에 측정된 빈곤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연속 빈곤의 영향을 분석할 때는 2, 3차 년도의 측정 자료가 같이 사용되었다. 매개변수들은 모두 2차 년도에 측정된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웃환경은 청소년패널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웃 간의 친밀도와 비공식적 사회통제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 교육수준, 아동 성, 아동의 건강상태, 학교유형 등의 변수에 대해서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기술 통계치의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

변수 (변수명)		변수정의	평균 (표준편차)
학업성취도	3차년도 학업성적	3차 년도(고 1 시기) 측정된 국어, 영어, 수학의 성취도 합 (1점: 매우 못하는 수준 - 5점: 매우 잘하는 수준)	8.99 (2.17)
	1차년도 학업성적	1차 년도(중2 시기) 측정된 국어, 영어, 수학의 성취도 합 (1점: 매우 못하는 수준 - 5점: 매우 잘하는 수준)	9.38 (2.46)
빈곤	빈곤 여부 (%)	1차년도(중2 시기) 빈곤 여부 (2차, 3차년도 빈곤) 빈곤은 육구조득비 1미만 (비빈곤=0)	8.81 (8.07, 7.15)
	빈곤 기간	연속 빈곤 (3년 이상의 장기 빈곤) 일시적 빈곤 (2년 또는 1년만 빈곤) 비빈곤 (기준 변수)	1.7 13.5 84.8
이웃환경 및 아동 감독	이웃의 통합성 및 아동 감독	2차 년도에 측정된 이웃 간 신뢰 및 통합과 아동에 대한 이웃의 비공식적 감독에 관한 6문항의 합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alpha=.80$)	18.24 (4.54)
가족구조	한 부모 여부 (%)	한 부모 부모 모두 생존 (=0, 1차년도 측정)	5.4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백만)	2차 년도에 측정된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34 (.29)
부모-자녀 애착	부모와의 애착 정도	2차 년도에 측정된 부모와 아동의 애착 정도 6문항의 합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alpha=.88$)	20.58 (4.50)
부모의 감독	아동의 생활감독정도	2차 년도에 측정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4문항의 합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alpha=.87$)	13.54 (3.33)
자기 통제력	아동의 자기통제력	2차 년도에 측정된 아동의 자기통제력 6문항의 합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alpha=.69$)	16.24 (4.10)
부모 교육수준 (%)		대학(전문대 포함)입학이상 (고졸 이하 = 0)	76.3
아동 성 (%)		여성=1, 남성=0	49.8
아동의 건강상태		1차 년도에 측정된 아동의 현재 건강상태 나쁜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2.00 (.10)
학교유형 (%)		인문계(특목고포함)=1, 실업계(중합, 실업, 예체능포함)=0	75.8

* 역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한 문항

본 연구의 학업성취도는 1, 3차년도 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세 과목의 성취도 합은 각각 평균 9.38(표준편차 2.46), 8.99점(표준편차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들은 ‘매우 못하는 수준(1점)’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5점)’으로 구성된 아동이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 성적의 정도이다. 또한 주요 독립변수인 가족빈곤은 빈곤여부, 빈곤기간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빈곤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1차년도 가구의 욕구소득비가 1미만일 경우, 빈곤으로, 1이상일 경우에는 비빈곤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빈곤기간은 장기적인 연속빈곤의 경우, 아동의 중2 시기(03년)에서 고1 시기(05년)에 이르는 3년 중에서 3년 연속 장기적으로 빈곤할 경우, 연속 빈곤으로 정의했으며, 일시적 단기 빈곤은 1-2년 이하의 빈곤을 일시적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기초분석 결과, 1차 년도에 빈곤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8.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빈곤한 가구는 1.7%, 13.5%가 일시적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는 한 부모와 부와 모 모두 존재하는 가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한 부모 가족구조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²⁾.

매개변수인 사교육비 변수는 해당 학생에 대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2차 년도에 평균 34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애착은 부모와 아동의 애착정도를 공유시간, 애정표현, 상호 이해, 대화 등 6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사용하였다(평균 20.58점, $\alpha = .73$). 둘째, 부모의 감독은 아동이 외출했을 때,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에 대해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총 4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사용하였다(평균 13.54점, $\alpha = .96$). 마지막으로 아동의 자기 통제력은 아동의 자기 통제능력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나는 내일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등 총 6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사용하였다(평균 16.24점, $\alpha = .69$).

또한 이웃 환경은 이웃의 통합성과 이웃의 비공식적 아동감독으로 구성되었으며,

2) 조사 대상 아동의 가족 중 부모가 없는 가족은 분석의 편의상 분석사례에서 제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는 총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평균 18.24, 표준편차 4.54). 이 밖에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변수로 보고되고 있는 부모학력, 아동 성, 아동의 건강상태, 학교유형 등이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은 모의 교육 수준을 기초로 하였으며, 모의 교육수준에 대한 응답이 결측되었을 경우(모 부재가구), 부의 교육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부모의 학력이 대입 이상인 가구는 76.3%로 나타났다. 아동 성의 경우, 여성이 49.8%, 5점 만점으로 측정된 아동의 건강상태는 평균 2.00 점, 학교유형은 인문계(특목고 포함)의 경우가 75.8%로 높게 나타났다.

2. 분석방법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OLS회귀분석 모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4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학업성적을 가족 빈곤 변수와 가족구조변수 그리고 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의 상호작용변수, 이웃환경 변수 등에 회귀시키는 모형이 사용된다. 또한 주요 변수들이 양적 변수로 측정되어 있어 회귀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한 OLS회귀분석을 이용한다. 구체적 분석 모형은 가족구조 변수와 부모 교육수준, 아동성별, 건강상태, 학교유형 등 통제변수와 한 부모 가족구조와 이웃환경 변수만 포함된 모형(모형 1)과 1차년도(중2 시기) 가족빈곤여부 변수가 포함된 모형(모형 2), 빈곤 지속기간 변수가 포함된 모형(모형 3), 빈곤과 가족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 변수가 포함된 모형(모형 4)을 분석한다. 또한 모형 4에 1차년도 시기의 학업성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모형(모형 5)과 과정변수들이 추가된 모형(모형6)을 분석한다. 이 밖에 모든 과정변수가 같이 포함된 모형 6을 각 과정변수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포함한 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개별 매개변수들의 독립적인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IV. 분석결과

〈표 2〉는 3차년도(고 1 시기)에 이른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6개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부모교육수준, 아동성별, 건강상태, 재학교유형 등의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이웃환경과 한 부모 가족구조 변수의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웃의 통합 정도와 비공식적 통제 문항으로 측정된 이웃환경이 긍정적인수록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즉 이웃 간의 통합정도가 높고, 비공식적인 통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강한 이웃 환경일수록 학업성적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한 부모 가족구조로 측정한 가족구조 역시,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기 아동의 경우, 양 친부모 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적이 -.43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이웃환경 및 가족구조 변수를 포함한 통제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1차 년도에 측정된 빈곤 여부 변수의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결과,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은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비빈곤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빈곤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469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 변수는 가족 빈곤 변수가 포함된 후에도 계수의 수준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환경의 영향 역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3에서는 비빈곤 가족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연속 빈곤과 1년 또는 2년 이하의 일시적 빈곤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3년 연속으로 빈곤을 경험한 가정의 청소년은 빈곤을 한 해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적이 낮게 나타났으며,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한 가정의 청소년 역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았다. 연속적인 빈곤과 일시적인 빈곤의 영향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연속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773점)은 일시적 빈곤(-.460점)을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적이 더 나빴다.

모형 4에서는 빈곤과 가족소득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검증결과, 빈곤과 한 부모 가족 상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준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보였다. 즉, 빈곤과 한 부모 가족 상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846점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였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 또는 가족구조 변수의 개별적인 영향 보다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다. 또한 모형 5에서는 3차 년도에 측정된 학업성적에 대한 1차 년도에 측정된 가족 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 변수의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 1차년도의 학업성적 변수를 모형 4에 추가한 모형이다. 분석결과, 3차년도의 학업성적에 대한 가족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은 1차년도의 학업성적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6에서는 모형 5에서 검증된 가족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의 상호작용적인 영향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교육비, 부모자녀 애착, 부모 생활감독, 아동의 자기통제력 등의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분석결과, 월 평균 사교육비 변수와 아동의 자기통제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에게 투자되는 월 평균 사교육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역시,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가족빈곤과 가족구조의 상호작용변수의 영향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즉 가족빈곤과 가족구조의 상호작용적인 영향이 사교육비 변수와 자기통제력 변수에 의해 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빈곤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1	2	3	4	5	6
부모교육수준 대학입학 이상 (고졸 이하 기준)	.859*** (.095)	.833*** (.098)	.811*** (.096)	.839*** (.098)	.454*** (.088)	.390*** (.094)
아동성별 (남성 기준)	-.083 (.080)	-.095 (.082)	-.085 (.079)	-.090 (.082)	-.057 (.072)	-.119 (.081)
건강상태	.028 (.039)	.033 (.040)	.031 (.039)	.029 (.040)	.029 (.035)	.058 (.039)
재학 고교유형 (비인문계 기준)	.094 (.096)	.044 (.100)	.024 (.097)	.038 (.100)	-1.08*** (.097)	-1.22*** (.118)
이웃 환경	.030*** (.009)	.031*** (.009)	.030*** (.009)	.031*** (.009)	.015 (.008)	.008 (.009)
가족구조 한 부모 여부 (양부모 기준)	-.431** (.183)	-.337* (.200)	-.208 (.191)	-.161 (.219)	-.020 (.193)	.346 (.285)
빈곤여부 (비빈곤 기준)		-.469*** (.155)		-.362* (.164)	-.084 (.146)	-.063 (.190)
빈곤지속기간 3년 연속 빈곤			-.773** (.317)			
2년 이하의 일시 빈곤 (비빈곤 기준)			-.460*** (.122)			
빈곤 × 가족구조				-.846** (.384)	-.718* (.339)	-.961 (.501)
사교육비						.005*** (.001)
부모자녀 애착						.020 (.011)
자기통제력						-.062*** (.010)
부모생활감독						.023 (.014)
학업성적 1차년도					.473*** (.017)	.439*** (.019)
상수	8.213*** (.200)	8.255*** (.205)	8.325*** (.201)	8.266*** (.205)	4.967*** (.217)	5.624*** (.365)
F	18.312***	16.640***	16.093***	15.280***	102.00***	62.217***
Adj. R ²	.035	.039	.040	.040	.250	.276

*p<.10, **p<.05, ***p<.01

그러나 이러한 매개변수의 영향은 매개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표 3>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과 하나씩 투입한 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사교육비 변수와 아동의 자통제력 변수의 영향은 동시투입 모형의 결과가 개별투입 모형에서도 재확인되었고, 동시 투입모형에서 그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던 부모자녀 애착과 부모감독 변수 역시, 개별 투입모형에서는 학업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간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청소년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생활감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음을 말한다. 이 밖에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에 비해 대입 이상일수록,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차년도 학업성적을 통제한 모형 5와 6에서는 인문계 학생일수록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 건강 등은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3> 매개변수의 효과비교

	모형 6 (동시투입)	모형 6 (개별투입)
사교육비	.005*** (.001)	.006*** (.001)
부모자녀애착	.020 (.011)	.027*** (.008)
자기통제력	-.062*** (.010)	-.058*** (.009)
부모생활감독	.023 (.014)	.040*** (.011)

***p<.01

<표 2, 3>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청소년기 아동이 경험하는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이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을 때, 그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1차년도 학업성적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이후에도 가족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의 상호작용항의 영향 정도가 크게 나타난 점은 청소년기의 빈곤과 가족 결손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으며, 두 가지 위험요소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여러 매개변수들에 의해

매개되는 결과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 1-3차년도(2003년-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기 아동이 경험한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이 학업 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의 과정분석과 더불어 이웃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결핍을 대변하는 변수라 할 수 있는 빈곤이 학업 성취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빈곤 영향의 존재 유무 또는 장기 패널 자료를 활용한 시간적 차원(기간)이 고려된 빈곤의 영향을 검증했다. 또한 한 부모 가족구조라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분야 연구의 오랜 논란 중의 하나인 가족 구조와 빈곤의 상대적 영향 검증과 함께 이들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패널 자료를 통해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빈곤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빈곤의 영향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가족을 넘어 이웃의 통합 정도 또는 청소년기 아동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정도 등의 이웃환경이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빈곤 여부와 빈곤 지속기간은 부모 학력, 아동의 성별, 재학 고교유형, 아동의 건강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족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기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기 아동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장기간 연속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일시적 빈곤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시적 빈곤 역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연속적 빈곤보다 그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연속 빈곤을 경험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어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 Korenman, Miller and Sjaastad, 1995)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란이 되어온 학업성취도에 대한 빈곤과 가족구조의 상대적 영향과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을 검증하였다(연구문제 2). 분석 결과, 한 부모 여부로 측정된 가족구조의 영향은 빈곤 변수와 같은 모형에 포함되었을 경우, 그 영향이 약해지거나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발달 영역 중, 빈곤은 인지적 발달이나 학업성취에 가족구조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cLanahan, 199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 구조와 빈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두 위험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두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빈곤과 한 부모 가족 구조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과 한 부모 가족 상황이라는 두 가지의 위험 요소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배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조 하나의 변수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빈곤과 결합되었을 때,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있는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양육과 소득활동을 겸해야 하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양육이나 소득활동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한 부모가족이 빈곤해질 가능성이 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McLanahan and Sandefur, 1994)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빈곤 상황이나 한 부모 상황 중 어떠한 변수가 선행변수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 부분은 보다 장기적인 패널 축적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경험한 한 부모 여부로 측정된 가족구조는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한계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가족 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의 상호작용적인 영향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은 사교육 지원 정도, 부모자녀 간의 애착 정도,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생활 감독 정도, 그리고 아동의 자기통제력 정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인적자본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재정적 또는 교육적인 지원에 의해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의 영향이 매개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 빈곤이나 한 부모 가족구조의 영향이 부모 자녀 간

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의해 매개되며, 이러한 가족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아동의 정서적인 특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가족과정모델에 기초한 선행연구(Duncan, Brooks-Gunn, 1997; Guo and Harris, 2000; Jackson, Brooks-Gunn, Huang and Glassman, 2000; Linver, Brooks-Gunn and Kohen, 2002; Yeung, Linver and Brooks-Gunn, 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교육 지원 정도와 아동의 자기통제력 정도가 주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네 번째 연구문제인 이웃 환경 역시, 아동의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웃의 결속력이 높거나 아동에 대한 비공식적 감독의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웃 또는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을 지역단위의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개인에 적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청소년패널의 경우, 개인 차원에서 조사된 이웃 환경을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패널의 경우, 이웃의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통합 정도 또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대해 주로 조사하고 있는 반면, 선행연구들은 이웃 또는 지역 단위의 빈곤율, 실업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차이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 부모의 교육수준은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보다 대학입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아동 성별이나 아동의 건강상태, 재학 고교유형 등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발견은 첫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분석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와 달리, 패널자료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기여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한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횡단연구의 경우, 인과관계의 검증에 있어 핵심적 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선행한 사건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부재한 상태였던 비교적 장기적인 청소년 패널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특히 조사 시작 시점의 종속변수(학업성적)의 수

준을 회귀분석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함으로써 조사 이전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제 3의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족빈곤 또는 한 부모가족구조 등)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적인 관계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의 상대적 영향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의 상호작용 효과의 검증을 통해 빈곤이나 한 부모 가족구조의 개별적인 하나의 위험요소보다 두 위험요소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배가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다시 말해, 가족구조 하나의 변수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빈곤과 결합되었을 때,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빈곤의 영향보다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빈곤과 한 부모 가족 상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 집중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 빈곤이나 한 부모 가족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향이 사교육 지원이나 가족관계, 그리고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들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대한 이웃 환경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의 지점으로 증거시적인 이웃환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은 청소년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이 집중된다고 보고되고 있는 초기 아동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초기 아동기에 대한 조사와 이에 기초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명확한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등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이 아닌,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한 블록 단위의 순차적인 위계적 변수 투입방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매개변수들의 논리적인 선후관계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위계적인 변수 투입방법은 선형회귀모형에서 매개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경로 및 매개효과를 검증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 부분 역시,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매개변수로 포함된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많은 매개변수들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보고된 매개변수의 영향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학업성적에 대한 매개변수로 보고되고 있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나 또래 관계 및 학교 관련 변수 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성취도는 청소년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분석결과에 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학업성적에 대한 객관적 지표의 개발과 측정, 그리고 이에 기초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 변수 역시, 아동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를 제한적으로 측정된 변수가 사용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2호, pp. 5-32.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제10권 제3호, pp. 269-296.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제10권 제1호, pp. 21-40.
- 김기현(2004). 가족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8권 제5호, pp. 109-142.
- 김광혁(2006). 아동기 빈곤이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빈곤의 시기와 기간, 정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1호, pp. 195-217.
- 김현주, 이병훈(2005). 부모의 가족배경과 사회문화적 자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방하남, 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별 불평등의 분석.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임세희(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호, pp. 55-78.
- Becker, G. S. and N. Tomes(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4 No. 3, pp. S1-S39.
- Bradley, R. and R. Corwyn(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3, pp. 371-399.
- Brooks-Gunn, J. and G. Duncan(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Vol. 7 No. 2, pp. 55-71.
- Conger, R. D., K. J. Conger, G. H. Elder, F. O. Lorenz, R. L. Simons and L. B. Whitbeck(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Vol. 63, pp. 526-541.
- Conger, R. D, K. J. Conger, G. H. Elder, F. O. Lorenz, R. L. Simons and L. B. Whitbeck(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pp. 206-219.
- Conger, R. D., G. H. Elder, F. O. Lorenz and R. L. Simons(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 65, pp. 541-61.
- Conger, R. D., H. G. Elder, F. O. Lorenz, K. J. Conger, R. L. Simons, L. B. Whitbeck, H. Shirley and N. M. Janet(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2, pp. 643-656.
- Corcoran, M.(2000).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success. *Focus*, Vol. 21 No. 2, pp. 16-20.
- Duncan, G., J. Brooks-Gunn and P. K. Klebanov(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 65 No. 2, pp. 296-318.
- Duncan, G., W. J. Yeung, J. Brooks-Gunn and J. R. Smith(1998). How much does childhood poverty affect the life chances of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pp. 406-423.
- Eamon M. K.(2002). Effects of poverty on mathematics and reading achievement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2 No. 1, pp. 49-74.
- Guo, G., and K. M. Harris(2000).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Vol. 37 No. 4, pp. 431-447.
- Haveman, R. and B. Wolfe(1994). *Succeeding Generation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s in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ill, M. S. and J. R. Sandfort(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7(1/2), pp. 91-126.
- Jackson, A. P., J. Brooks-Gunn, C. Huang, and M. Glassman(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Vol. 71 No. 5, pp. 1409-1423.
- Korenman, S., J. E. Miller and J. E. Sjaastad(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LS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7(1/2), pp. 127-155.
- Linver M., J. Brooks-Gunn, and D. Kohen(2002).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8 No. 5, 719-734.
- McLanahan, S.(1985). Family Structure and the Reproduction of Pover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pp. 873-901.
- McLanahan, S. and G. D. Sandefur(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anahan, S.(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35-48. Edited by G. Duncan & J. Brooks-Gun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McLoyd, V.(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 61, pp. 311-346.
- McLoyd,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No. 2, pp. 185-204.
- McLeod, J.D. and M. J. Shanahan(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8, pp. 351-366.
- Sampson, R. J., and J. D. Morenoff(1997). Ecological perspectives on the neighborhood context of urban poverty: Past and present. *Neighborhood Poverty*, Vol. 2, pp. 1-22. edited by J. Brooks-Gunn J., G. Duncan, and J. L. Aber. New York: Russell Sage.
- Steinberg, L., S. D. Lamborn, S. M. Dombusch and N. Darling(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Vol. 63, pp. 1266-1281.
- Yeung, W.J., M.R. Linver and J. Brooks-Gunn(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Vol. 73, pp. 1861-1879.

ABSTRACT

The Effects of Economic Deprivation, Family Structure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on Academic Attainment

Kim, Kwang-Hyuk*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economic deprivation, family structure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on academic attainment using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2003-2005 (middle School 2). The method of analysis used was multiple regression. Our results show that economic deprivation, family structure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has an influence on academic attainment. Moreover, the interactive effects of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in turn influences academic attainment.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economic deprivation, family structure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influences academic attainment through process variables such as attachment, self-control and supervi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societal support for weak or vulnerable families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improving levels of academic attainment.

Key Words : poverty, family structure, neighborhood environment,
academic attainment

투고일 : 6월 11일, 심사일 : 7월 29일, 심사완료일 : 8월 11일

* Jeon-Ju University